

보도시점 : 2023. 7. 26.(수) 11:00 이후(7. 27.(목) 조간) / 배포 : 2023. 7. 26.(수)

한국의 지적시스템 6.25 참전국 콜롬비아에 전수

- 콜롬비아 넓은 대지와 풍부한 자원 등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양국 간 관계 개선으로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 마련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7월 24일부터 5일간 콜롬비아의 지적·토지분야 고위급 인사*를 초청하여 “콜롬비아의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”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콜롬비아 국토지리원(IGAC) 3명, 국가기획처(DNP) 3명, 토지청(ANT) 1명 등

- 콜롬비아 정부는 ‘22년 8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,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에 담긴 토지 소유구조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농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.

- 이를 위해 지적·측량 성과, 부동산 가격 등 지적·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목적 지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지적 및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분야의 양국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.

- 이러한 콜롬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콜롬비아 지적·토지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·측량·부동산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, 다목적 지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ODA*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
*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, 사회발전,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

- 초청 연수단은 국토부를 방문하여 국토관리 정책 및 국토위성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였고, 한국국토정보공사(LX)의 측량기술, 토지 정보화 및 한국 부동산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시스템에 대해서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콜롬비아* 초청 연수단은 7월 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.

* 6.25 전쟁 유일한 중남미 참전국으로 해군 및 육군 5,100명을 파병

-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이번 초청연수가 6.25 참전국인 콜롬비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, 양국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관 지적재조사기획단	책임자	기획관	오성익 (044-201-0000)
		담당자	주무관	박다솜 (044-201-4659)
담당 부서	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	책임자	과 장	강성습 (044-201-3469)
		담당자	사무관	이인원 (044-201-3470)



□ 추진배경

- 콜롬비아 대통령(Gustavo Petro) 취임식 우리 측 특사단 파견('22.8) 당시 토지개혁*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토지(지적)분야 협력 지원 요청

* 정부-반군 간 평화협정 체결('16) 이후 토지 소유구조 불균형 해소 추진

- 2030 부산EXPO 유치(경제협력) 사절단('23.2.26~3.5, 국토부, LX 등)의 콜롬비아 방문 당시, 토지개혁 관련 요청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

☞ 콜롬비아 측에서 요청한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콜롬비아 대표단 역량강화 초청연수(7인) 추진(7.24~29)

□ 콜롬비아 요청사항

- 정부-반군간 평화협정(제1항)의 토지개혁 실현을 위해 다목적 지적시스템* 구축에 필요한 자원, 기술연수(측량·정보화), 장비 지원 등 요청

* (다목적 지적시스템) 지적·측량 성과, 지가 등 토지정보를 종합제공

□ (참석자 현황) 콜롬비아 국토지리원장 등 총 7인*

* 콜롬비아 국토지리원(IGAC) 3명, 국가기획처(DNP) 3명, 토지청(ANT) 1명 등

□ 주요 일정(7.24~7.28)

- 한국의 토지개혁 사례, 위성영상 체계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현황 등을 소개하고, 콜롬비아 측 주요 정책 및 계획 공유

※ 7.25(화) 오전 11시에 우리 부 방문 및 협의 예정(7.25)

- 중남미 유일의 6.25 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 대표단의 정전협정 70주년 관련 국제기념식(7.27, 국가보훈부 주관)에도 참석 예정